이재명 "반도체법 신속 제정… 생산 세액공제"

선택! 대선 D-35

반도체 공약 발표…"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만들 것"

"서해안에너지고속도로 완공해 RE100 달성 등 지원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8일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반도체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글로벌 경제패권은 누가 반도체를 지배하느냐에 달려 있다. 반도체를 지키는 것은 우리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며 후보 선출 후 1호 공약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이 경쟁적으로 반도체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우리 반도체특별법은 정부와 국민의힘의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는 반도체 산업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예외 제도'를 특별법에 명시하는 문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민주당은 52시간 예외 제도를 명시하지 않은, 산업지원에 대한 내용만을 담은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17일 이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이 후보는 이날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이 이에 대한 입장을 질문하자 "지금은 그런 논쟁적인 이슈들보다는, 실질적으로 기반 시설을 확보하거나 세제 지원 등 관련 업계가 당장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해결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반도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넓힐 것"이라며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는 최대 10%의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기업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반도체는 대표적 자본집약 산업으로,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드는 데다 격차가 생기면 따라잡기 어렵다. 정부가 길을 내 기업들이 잘 달릴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세제 혜택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 기업의 국내 유턴을 지원해 공급망 생태계도 강화할 것"이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조성을 서둘러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린 반도체단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반도체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며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완공해 반도체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반도체의 전설로 꼽히는 앤디 그로브(전 인텔 최고경영자)는 '위기가 닥쳤을 때 나쁜 기업은 망하고 좋은 기업은 살아남지만, 위대한 기업은 더욱 발전한다'고 말했다"며 "반도체 경쟁력을 확대하려면 국가 차원의 투자가 필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8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제15회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에서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풍요로운 어촌의 희망찬 미래를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전국 수산업경영인, 풍요로운 어촌 비전 공유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개최…내일까지 화합의 장

전남도는 제15회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가 28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기념식이 열려 3일간 전국 수산업 경영인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풍요로운 어촌을 위한 비전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1997년부터 개최된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는 전국 수산업 경영인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의미 있는 행사다.

올해는 '수산업의 미래를 여는 힘, 상생의 바다 여수에서'를 주제로, 수산업 경영인의 화합과 미래 비전을 다지는 장으로 치러진다. 지난 1997년 여수에서 첫 대회가 열린 이후 28년 만에 다시 여수에서 열리고 있다.

기념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주철현·서천호·문대림 국회의원, 해양수산부 관계자, 수산 관련 단체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해양수산발전 유공자 표창, 유관기관 홍보, 수산물 직거래 및 먹거리 행사, 학술행사, 축하공연, 노래자랑 등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지고, 참석자들은 수산업의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김영록 지사는 "수산업은 국민 식탁을 책임지는 중요한 기간산업이자, 수산인의 삶의 터전이다"며 "전남도는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청년창업 지원, 수산식품 수출단지 구축 등 미래 수산업 혁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바다와 미래를 잇는 수산업 경영인의 힘이 모여 지속가능한 수산업, 풍요로운 어촌, 희망찬 미래를 함께 열 것이다"며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

전남도,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내달 28일까지 150명 모집

전남도는 대학생과 청년을 중심으로 지역 벤처창업 기반을 다지고, 미래 첨단분야 우수기술 창업을 유인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운영, 지원자(기업)를 5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7월부터 운영하는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전남 벤처창업 3·3·3프로젝트'의 핵심사업이다. 우주발사체·바이오·반도체·데이터·이차전지·에너지 등 지역특화 기술 분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을 가진 대학생과 청년의 기술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예비창업자나 5년 이내 창업 기업인(2020년 1월 1일 이후 창업) 중 18세부터 45세 이하 청년(1980년부터 2007년 출생자)으로, 전남 거주자 및 전입 예정자여야 한다. 선발 규모는 총 150명(기업)이다. 창업 분야별로 우주항공·바이오·인공지능(AI)·데이터·에너지등 지역특화기술 100명, 농수산기술 30명, 문화·관광 20명 등 미래 첨단 분야 기술창업 중심으로 선발한다. 박정렬 기자 holbul@

광주 도심서 어린이날 황금연휴 즐기세요

서커스·마술쇼·랜덤댄스 등 행사 '다채'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광주도심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5월 첫째 주말인 3일부터 4일(휴일), 5일(어린이날·석가탄신일), 6일(어린이날 대체휴일)로 이어지는 '황금연휴' 기간 동안 볼거리, 즐길거리, 놀거리로 가득한 광주에서 특별한 연휴를 즐기는 건 어떨까.

광주시는 다음달 3일 오전 9시30분 시청 앞 잔디광장(우천 시 시청 시민홀)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연다.

올해 어린이날은 석가탄신일과 겹치고 긴 연휴로 인한 가족 개별 일정 등을 고려해 연휴 첫날인 오는 3일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는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된다. 문화 공연부터 체험활동 등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들이 풍성하다.

저글링 서커스, 옴니버스 마술쇼 등 문화 공연을 시작으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DJ와 함께하는 현장 노래방, 어린이 랜덤댄스, 금은보화 보물찾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형 에어바운스 2대를 설치해 아이들이 잔디 위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했다. 네일·헤어·모자아트 체험, 가족액자·캐릭터 부채 만들기 등 체험부스도 운영한다.

시청 1층 시민홀에서는 '아동친화도시 광주'를 주제로 한 아동 시화작품 전시가 준비돼 있으며, 안전체험관도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된다.

광주시립도서관은 5월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아 5월 한 달간 지역 3개 도서관(무등·산수·사직)에서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체험형 프로그램부터 공연, 전시, 연체해제 이벤트까지 다양한 행사가 준비됐다. 무등도서관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나만의 구슬풍선 꾸미기 체험(3일), 봄 소풍 도시락 만들기 체험(4일)을 진행한다. 아동 도서 '5번 레인', '긴긴밤'의 온라인 원화 전시도 운영한다. 이번 행사기간 중 연체 아동 회원을 대상으로 연체기록 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5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박물관 야외 광장 일원에서 '5월 어린이·가족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페이스페인팅, 민속놀이, 무형문화유산 만들기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마술쇼, 풍선쇼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구성됐다.

주요 체험 행사로는 버블놀이, 도전! 미션 5종(볼링·다트·고무신 던지기 등), 솜사탕·팝콘 나눔, 포토박스 가족 네 컷 촬영, 무형문화유산 체험(나전칠장·의례음식장), 초크아트·페이스페인팅, 전통 민속놀이 등이 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NEWS

2025년 4월 29일 화요일

국힘, 오늘 2차 경선결과 발표

후보들, 인터뷰 등 지지호소

국민의힘이 28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제2차 경선 일정을 마무리하고, 2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득표율 50% 이상 득표자가 있을 경우 3차 경선은 시행되지 않는다.

다만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는 다음 달 3일 예정대로 치러진다.

과반 득표자가 없어 양자 결선에 돌입하면 30일 1대1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후 다음 달 1~2일에 걸쳐 선거인단투표, 국민여론조사를 한다. 이를 각각 50%씩 반영해 최종 승리자를 다음 달 3일 전당대회장에서 공개한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4명은 2차 경선 투표 마지막 날인 이날 언론 인터뷰와 지역 일정 등을 소화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문수 후보는 언론 인터뷰 후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수출 진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홍준표 후보는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간담회를 열고 중소 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한동훈 후보는 충남 아산 현충사에서는 순국선열 참배 후 국방정책을 발표했다.

안철수 후보는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서해수호 영웅과 수해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순직한 채모 상병의 묘소를 참배했다.

연합뉴스